복음

본당의 해 Ⅱ (2018-2020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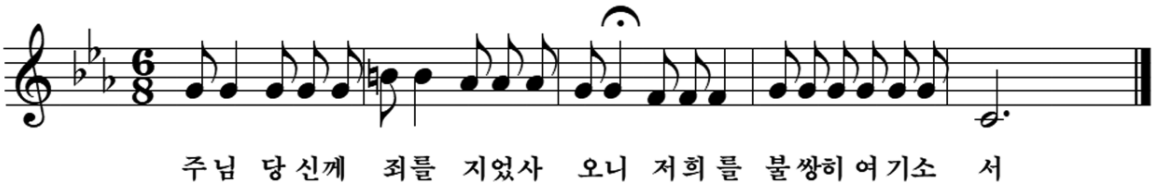
2020. 3. 1. 사순 제1주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마태 4,10)

이스라엘 성 조지 수도원
교구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창세 2,7-9; 3,1-7 **제2독서** 로마 5,12-19 〈또는 5,12.17-19〉 **복음** 마태 4,1-11

화 답 송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제2096호] 발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전자우편 hongbo@gjcatholic.or.kr | 전화 062) 380-2811 www.gjcatholic.or.kr

삶과 유혹

주님과 함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느님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사실, 악마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물던 40일 동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생활 전체에 걸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를 통해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똑같은 유혹을 매 순간 겪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을 때 유혹이 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유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에 빠져보기도 하고 헤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소 인간이 받아야 할 유혹을 체험하시고 극복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모두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고 신앙인의 본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에게 죄를 강제로 짓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앗아가려 넘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할 때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광야의 유혹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단식, 절제, 희생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며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과 기도, 단식, 절제, 희생으로 유혹에 맞서 싸워 주님과 함께 성장하시기를 빕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은총과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김지민 스테파노 신부
옥암동 성당

조선(CHOSEN : 선택받은)인들[2] V

2,200만 백성의 쾌활한 이야기

1940년 5월
패트릭 오코너 *Patrick O'conner* 신부

시골 봄 풍경

한국의 시골에서는 나지막한 산들과 계곡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시골 풍경은 눈이 오면 으스스하게 변하고,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한다. 풍경뿐 아니라 주택가 주위도 마찬가지다. 늦은 봄과 초여름의 시골 풍경은 참으로 멋지고, 미소 짓는 점잖은 사람들에게 어울릴 법한 배경으로 변한다.

시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들에 나가 고된 일을 한다. 한쪽에서는 보리를 수확하거나 도리깨질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나무로 된 페달형의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물을 댄 논에서는 잡초를 솎아내고 못자리에서 모를 옮겨 심는다. 때때로 전 가족이 논에 나와 있기도 한다. 나는 발목 깊이 혹은 무릎 깊이의 물에 잠긴 조그만 논 하나에서 나란히 서서 모를 이식하는 사람을 열네 사람까지 본 적이 있다.

몇몇 야산들은 벌거숭이고 돌투성이지만 대개는 나무가 잘 우거져 있다. 일본의 오래되고 위풍당당한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나무들은 아직 작은 편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고목들을 지난 시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모습은 정부의 재녹화사업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짙푸른 소나무와 전나무들이 산기슭을 기어올라 능선들을 뒤덮고 있는 반면에, 연녹색으로 빛나는 포플러 나무들은 논가에 형성되어있다.

미지의 하느님

6월의 어느 주일이 생각난다. 그때 한국의 시골은 녹색, 은백색, 그리고 황금빛으로 그려

진 한 폭의 장대한 그림과 같았다. 모든 언덕에서마다 계곡 아래로 비옥한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길가에 빽빽이 늘어선 포플러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풍성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나뭇잎들을 흔들어 대고 있었다. 거의 뿌리에까지 잎이 나 있는 곧게 위로 뻗은 나무들은 삐죽삐죽 삐져나온 어린 모가 심겨진 투명한 논물에 반사되었다. 이 모든 풍경들은 노동하는 인간보다는 창조주인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의 주재자는 수백만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미지의 상태이다. 그날은 주일 오후였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논일하는 또 다른 하루이자, 미사의 종소리도 듣지 못하고 세상 근심으로부터의 안식도 모르는 그런 하루일 뿐이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지만, 중국 여러 지역들처럼 몹시 참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 다섯 중 네 명은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광산들은 개발되고 있으며, 동양식과 서양식이 반반 섞인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쓴 글을 실은 잡지다.

2) "*The CHOSEN People*"(1940년 5월), p.4-7.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0년 사순 시기 담화(요약)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2코린 5,20)

올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신비를 경축하고자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신비는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주축을 이룹니다.

1. 회개의 근본인 파스카 신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 곧 복음 선포(*Kerygma*)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솟아납니다.

이번 2020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저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저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의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러 갈 때에,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피로 깨끗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23항). 예수님의 파스카는 성령의 권능으로 언제나 현재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해 줍니다.

2. 회개의 시급성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 자비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갈라 2,20)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시기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을 꿰뚫고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어, 우리가 더더욱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뜻으로 돌아서게 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호세 2,16 참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더욱 기꺼이 되울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3. 당신 자녀들과의 대화를 열렬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교회와 세상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속에는 이따금 비극적으로 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와 구원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강한 뜻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부의 구원 의지에 따라, 성자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4.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부(富)

파스카 신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 안에 아로새겨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하여 우리도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선의의 사람들에게 희사(喜捨)를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가장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사는 더 공정한 세상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개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선의 나눔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 줍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사순 시기를 거행하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어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파스카 신비에 고정시키며, 회개하여 하느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회안에서
늘어나는 여성의 리더십

이미영 발비나 / (사)우리신학연구소

작년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도회를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인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약칭 수도회성)'에 23명의 새 위원을 임명하면서, 여자수도회와 재속회 장상인 7명의 여성을 새 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도회성에 추기경, 주교, 사제, 남자수도회 장상 등 모두 남성만 있었을 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수도회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수도회가 있는데도 그동안 여자수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황청에서는 한창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황청의 방향은 전 세계 교회를 관리하는 중앙집중적인 역할보다는 각 지역 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읽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황청 직무에 평신도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미 교황청 여러 부서에 평신도 책임자가 임명되어, 교회운영에 참여하고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이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교황청 박물관장과 평신도가정생명부 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 평신도들이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올해 초엔 교황청 핵심부서인 국무원 외무부 차관에 평신도 여성이 최초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전 신자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빵을 나누는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꾸려나갔습니다(갈라 3,28 참조). 집안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는 여성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가정교회의 여성 지도자만 하더라도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사도 12,12), 리디아(사도 16,13-15; 16,40), 님파(콜로 4,15) 등이 있습니다.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여제자 타비타(사도 9,36), 켕크레애 교회의 일꾼 포이베(로마 16,1), 남편 아퀼라와 함께 가정교회를 이끌며 선교를 도운 프리스카(프리스킬라)(사도 18,2.18; 로마 16,3; 코린 16,19) 등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활약한 여성 신자들도 많습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이들이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는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천주교회 안에서도 여성 사목회장이나 단체장을 여성들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 내 주요 여성 임원의 비율을 30%로 늘리자는 제안이 자주 나왔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비율을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시 여성의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은 교회 안의 다양한 이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여성의 리더십에 관해 위계적인 상명하복의 지도력보다는 보살피고 격려하며 구성원들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기대하듯,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이 가장 약한 이들을 보듬고 서로를 북돋우며 신뢰와 조화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미영 발비나 / (사)우리신학연구소

총대리 주교님 동정

3월 2-3일 한일주교교류모임 준비회의

3월 8일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정기총회 미사

사목국

전례봉사자 교육

순천지구 : 3.7(토) 조곡동 성당 14:00
중남부지구 : 3.14(토) 보성 성당 14:00
광산 · 북부지구 :
3.21(토)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14:00
동 · 서 · 남부 · 나주함평지구 :
3.28(토)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14:00
주제 : 2020년도 교구 미사거행지침
신청 : 10일 전까지 그룹웨어 신청
문의 : 062) 380-2832

상반기 가정분과연수

일시 : 4.4(토) 09:30
장소 : 평생교육원 103호
대상 : 가정분과 및 사목위원, 관심있는 모든 분
참가비 : 광주시내 2만 원, 시외 1만 원,
교구지원본당 무료
계좌 : 농협 601135-55-000446
광주구천주교회
신청 : 3.24(화)까지 본당사무실
또는 그룹웨어(요청/신청)
문의 : 062) 380-2834

제65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기간 : 4.25(토)-5.23(토) 5주간
시간 : 매주 토요일 17:30-23:00(저녁식사 제공)
장소 : 운암동 성당
대상 : 모든 아버지들
인원 : 정원 36명
수강료 : 1인당 12만 원
문의 : 062) 524-8698, 010-5739-6388

피아골피정집

주방 조리원 채용공고

대상 : 세례 3년 이상, 급식 근무 경력자
근무여건 : 숙소제공, 4대 보험
문의 : 061) 782-5004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3.6(금) 16: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문의 : 062) 380-2843
* 군 입대를 앞둔 예비군인과 부모님께는 주교님께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통신교리(우편 · 인터넷) 안내

- 본당 교리반에 나갈 수 없는 예비신자와 첫영성체 교리 대상 신자
- 다시 교리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자

* 세례 받을 본당의 사제와 면담 후 신청서 작성
* '교구 홈페이지(www.gjcatholic.or.kr) 교구청 소개-사목국-통신교리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 안내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62) 380-2832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om FM 99.9 MHz FM 99.5 여수 MHz
페이스북 kjpbc99.9mhz 트위터 kjpb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3.2(월)-4(수) 김양수 신부(금호동 본당) / 3.5(목)-7(토) 이호진 신부(사거리 본당)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는 '내 마음의 도덕경' 저자이자 前광주가톨릭대학교 철학교수인 김권일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을 두 차례 개최합니다.

※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1차 특강 : 3.12(목) 14:30-16:00 / 주제 : "왜 비워야 하는가?"
2차 특강 : 3.19(목) 14:30-16:00 / 주제 : "고통과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장소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5층 공개홀 / 문의 : 보도제작국 062) 231-7705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새 어플 'cpbc빵'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1.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cpbc빵' 어플을 내려 받은 뒤 '광주'로 지역 설정을 합니다.
2. 왼쪽 상단 '≡' 클릭→하단 '⚙' 환경설정 클릭→'로그인' 클릭→'가입하기' 선택 후 회원가입 진행→실명인증

종교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월-금 14:00)'와 사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월-금 17:00)'을 'cpbc빵' 어플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빵톡(대화방)-회원들만 사용가능'으로 보내주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의 새 어플 'cpbc빵'의 회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갤러리 현 책더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2020년 1학기 수강생 모집

교리신학원 한국교회사/신론/성서입문/오경/교리교사양성학교 신학 · 영성 생태영성학교/수도자아카데미
성경 화요신약성경(요한복음서) 철학 현대철학사/철학고전읽기 어학 스페인어/주부영어교실/톡톡생활영어
자격 가톨릭상담심리사(3급)/인지활동지도사/웃음지도사/레크리에이션지도사/미술상담심리사/우리춤체조
커피프로마스터 무용 실버성가무용/전통무/우리춤(작품반 · 창작반) 미술 교회미술/한국화
교회음악원 성음악사/음악기초이론/그레고리오성가Ⅰ/성가합창발성법Ⅰ/지휘/오르간(전문)/화성학Ⅰ
교회음악원합창반/그레고리오성가합창반 음악 가야금/민요/판소리고법/색소폰/클라리넷/바이올린/플루트
발성명가곡교실/성악(개인)/통기타/클래식기타/피아노(개인)/오르간(일반 · 성가반주)/대금/오카리나/난타
교양 음악심리;한박자쉬고/영화로성경읽기/가톨릭공예(양초 · 조각초 · 매듭묵주)/사진교실
시낭송을통한감성스피치/해설이있는클래식음악감상/생약초와정원코디네이터

2020년 장례지도사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국가자격 상장례지도사교육 표준교육과정반)

[기간] 3.7-11.28/1년/토,주일 [시간] 09:00-18:00(이론 250시간, 실습 50시간) [수강료] 100만 원(식사비 별도)
가톨릭상장예식을 바탕으로 본당에서 꼭 필요한 연도 및 전례교육, 염습 등 장례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 둘' 회보 발송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기관 · 단체

민족화해와 일치, 교회와 가정성화를위한 기도
일시 : 매주 화요일 13:00-16:00
장소 : 동 · 남부지구-학운동 성당
북부지구-공동주교좌 북동 성당
광산 · 서부지구-봉사자 교육관
문의 : 체나콜로 봉사회 010-3625-5037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일시 : 3.7(토) 09:20-11:30
장소 : 평생교육원 성당
내용 : 묵주기도, 미사(고해성사, 전대사 은총)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천호성지 목요하루피정
일시 : 3.19(목) 10:00-16:00
장소 : 천호성지 피정의 집 / 지도 : 오성기 신부
문의 : 063) 263-1004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피정 3.21(토)-22(주일),
3.25(수)-29(주일), 3.25(수)-4.2(목)
-이냐시오영신수련 3.27(금)-29(주일)
-내적여정에니어그램 3.14(토)-15(주일)(심화),
4.3(금)-5(주일)(기본)
-생명력찾는대화법 3.20(금)-22(주일)
장소 : 성심수녀회예수마음배움터(경기 파주)
문의 : 010-9099-2337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 031) 360-7635, 010-7470-7966

춘천교구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여름신앙캠프
일정 : 강원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참가비 : 초등(6차) 13만 5천 원, 중고등(2차) 14만 원
신청 : 3.9(월) 09:30 온라인 신청(접수순)
문의 : 청소년활동부 033) 255-6602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 3-12월 / 대상 : 15-30세 남자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 02) 828-3600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 역사 ·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접수가능)
제주성지순례
4.2(목)-5(주일), 4.13(월)-16(목),
5.2(토)-5(화), 5.9(토)-12(화),
5.20(수)-23(토)
자연순례피정
4.24(금)-26(주일), 4.28(화)-30(토)
접수 : 02) 773-1463, 064) 756-6009

3월 예수회 특강 취소
3.5(목) 예정이었던 예수회 특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010-9884-9988

수 도 회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 3.7(토) 15:30
장소 : 예수회센터 이냐시오카페
문의 : 010-9978-9765, vocation.jesuit.kr

예수고난화-다네이 글방(5만 원)
일자 : 3.12(목)-6.25(목)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장소 및 시간 : 10:00-12:00 평생교육원
주제 : 하느님을 향한 책 읽기와 글쓰기
문의 : 010-9503-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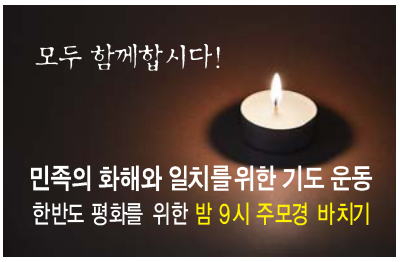
거룩한말씀의수녀회 '젊은이 사순피정'
기간 : 3.14(토) 17:00-15(주일) 17:00
대상 : 기도와 영적성장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장소 : 대전 본원 힐데갈드관
문의 : 010-2370-6239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피정
기간 : 3.21(토) 15:00-22(주일) 14:00
장소 :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 043) 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예수의소화수녀회-소화영성학교
일시 : 3.21(토) 09:30-12:30(점심 제공)
장소 : 남구 용대로 74번길 25
주제 : 성녀 소화데레사 영성의 근원인
대데레사의 기도영성
내용 : 성사, 강의, 미사
(성녀 소화데레사 유해미사)
참가비 : 1학기 5만 원(3-6월 세 번째 토요일)
강사 : 윤주현 신부
문의 : 010-4415-4022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모임
기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5:00-주일 13:00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문의 : 010-8353-232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초대
대상 :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장소 : 원하는 곳(미리 연락)
문의 : 노아 수녀 010-9353-177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교구지침

〈교구 대응 방안〉
- 3.5(목)까지 미사와 다수가 참여하는 모든 모임(사목회의, 레지오, 제단체 회합 등) 중단
-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전례), 선행 등으로 주일 의무 지키기
- 성당 방문시 마스크 착용 필수
- 고해성사는 성당 내 고해소가 아닌,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곳에서 가능
- 손 소독제 비치(성당 입구, 사무실 등)
- 성당 내 성수대 당분간 폐쇄

〈개인예방수칙 생활 방안〉
-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상담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이 어려움이 하루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대천사 라파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